

새로운 가족공동체 가꾸기사업 모델개발

부지연광 99.2.15

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은 올해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인권 보호와 위기여성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고 가정해체 방지 및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여성의전화연합에 따르면 지난 98년 IMF경제위기 이후 실적

여성지원센터 사업 중점 인권침해 감시활동 계획

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남편의 구타나 외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전화연합이 운영하는 19개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물리적, 신체

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폭언, 도박 등 정신적 폭력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IMF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유발하거나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 및 정치의 주류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여성정치인식 교육,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 없이 여성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여성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취업훈련과 정보제공 등도 할 방침이다.

또 여성노인 및 청소년 등의 인권과 여성복지분야에 치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및 정보공간상의 성폭력 등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활동도 활발히 벌일 계획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점사업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의전화는 오는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평가 토론회 및 전국순회 캠페인 등을 벌이고 일반인의 의식개혁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계획 중이다.

여성의전화연합 신혜수 회장은 “무엇보다 여성운동의 대중화가 시급하다”며 “일반여성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확보에 주력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되기 및 리더쉽향상 등을 위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인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IMF위기 여성지원센터 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그동안 가부장적인 가족 공동체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 등 건강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가꾸기 사업을 위한 모델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